

제35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월17일(수)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국무조정실
  - 나. 기획재정부
  - 다. 교육부
  - 라. 산업통상자원부
  - 마. 보건복지부
  - 바. 환경부
  - 사. 국토교통부

**상정된 안건**

- 1. 업무보고 ..... 2
  - 가. 국무조정실
  - 나. 기획재정부
  - 다. 교육부
  - 라. 산업통상자원부
  - 마. 보건복지부
  - 바. 환경부
  - 사. 국토교통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 첫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임이자 위원님, 인사말씀……

○**임이자 위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간단해서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저와 간

사님들 간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대책 및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후에 대부분의 특위 활동은 국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데 할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및 피해 현장, 미세먼지 피해 극복 현장, 미세먼지 관련 정책 집행 현장, 신재생에너지 현장 등을 부처 관계자와 함께 방문하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대책의 추진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1차 및 2차 현장 방문은 다음 주 23일·

2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 현장 방문은 2월에서 4월 중 위원님들의 일정과 국회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방문이 마무리되면 특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대 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숨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숨 쉴 권리가 바로 이 미세먼지특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에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부처가 나왔습니다. 여러 부처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범부처에 미세먼지특위 참여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우리 위원회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혼자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국내만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상 외교적 노력까지 병행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있다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차량 운행까지 나섰습니다. 가정에서조차 미세먼지야말로 바로 폐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철저한 대비를 해서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 가. 국무조정실
- 나. 기획재정부
- 다. 교육부
- 라. 산업통상자원부
- 마. 보건복지부

**바. 환경부  
사. 국토교통부**

(10시05분)

○**위원장 전혜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정부부처 중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부처인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7개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장관이 참석하신 환경부부터 먼저 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처는 건제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장관들은 오늘 오전에 개최되고 있는 중앙통합방위 회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존경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수도권 지역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금주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은 지속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국외 영향에 취약하여 단기간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난 6월 한 달간 노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바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6일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총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국내 배출원의 감축 노력과 함께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인 협력 방안과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와 소통·협력을 통해서 개선·보완 과제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선진국 기준에 비해 느슨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실시간 원격감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관리 방식을 배출농도 중심에서 배출총량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환경용량과 연계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운행제한을 확대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충전 인프라도 크게 늘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한중 정상 간의 미세먼지 논의를 바탕으로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저감기술 이전 등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내 우수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중국의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에 적용·검증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사업의 대상 지역과 산업, 기술을 확대해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고 한중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설정하면서 생명·생태가치를 존중하고 안전·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생활안전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직 개편 작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감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주에 발령한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응현황에 대한 현안보고와 함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저희 환경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 전망입니다.

2018년 국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나 기상조건 악화 시 단기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긴급현안보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대책 수립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도 수렴해서 작년 9월 26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시면, 그림에서와 같이 수도권외의 경우 경유차가 23%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서울 등 대부분의 도시가 WHO의 권고기준인  $10\mu\text{g}/\text{m}^3$ 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정부는 9월 26일 날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해서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배출 감축 분야, 국제협력 분야, 민감계층 보호 분야,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분야로 총 58개 과제를 만든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처별 과제와 내용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약 7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해서 4대 핵심 배출원 발전·산업·수송·생활 부문에서 현행 2016년 기준 32만 4000t의 미세먼지를 2022년도 22만 5000t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약 10만 t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본다면 발전 부문에서 20%, 산업 부문에서 43%, 수송 부문에서 30%, 생활 부문에서 15%를 달성해야 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7쪽입니다.

발전 부문의 환경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 현황은 발전 부문이 전국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배출량을 20% 삭감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배출허용기준안을 입법 예고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RF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이라든지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에 SRF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 부문에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 부문은 전국 배출량의 38%를 차지해서 가장 오염 배출량이 많은 부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총량제를 확대하거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한다거나 감시 강화를 통해서 이 부문에서 집중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만 한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충청권, 동남권, 광양만권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도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기관리권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먼지총량제는 작년도 시범사업에 이어서 금년도에 공통연소시설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대상 사업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공장시설의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량 배출되는 제철·철강, 석유 정제, 시멘트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 부분들이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소산화물의 대기배출부과금제는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했으나 경제적인 여건, 기술 수준의 발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돼서 2016년 말부터 작년 내내 업종별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현재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최종안을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금년에 부과요율이 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합의해서 금년 중에는 배출부과금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량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그리고 신기술—IoT라든지 드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송 부문에 환경부가 차지하는 부분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 부문은 전국 배출량의 28%를 차지합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기여도에 있어서 경유차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같은 경우는 LA 사례를 본다고 하면 PM2.5 농도 기여도는 15%에 불과하지만 발암 기여도는 84%로 매우 커서 모든 대도시에서는 이 경유차

를 어떻게 관리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이러한 조치를 확대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유차의 제작 단계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경유차의 실도로 조건이라든지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을 추가한다든지 매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아울러서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보급사업도 확대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토바이 이륜차 배출가스의 정기검사를 현행 260cc에서 50cc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해서 금년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노후 건설장비의 저공해화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 부문입니다.

생활 부문은 전국 배출량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1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 부문에 기여율이 가장 큰 도로 재비산 부분에 있어서 도로청소차량을 현행 1175대에서 2022년까지 2100대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페인트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함유 기준도 강화하고 공사장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의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국제협력에서 실질적 저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으로 미세먼지 공동 협력사업을 증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실무회의가 오늘 현재 중국 산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공동조사·연구 프로젝트, 실시간 측정자료 공유, 지금 현재

는 중국의 35개 도시와 우리나라의 3개 도시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74개 도시, 한국의 17개 도시까지 정보를 확대하기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입니다.

국내 우수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라든지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하고 검증하고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도 확대해 나갔고 금년도에 27개 프로젝트에 1600억 정도 규모의 발굴·협상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우수기술들을 중국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중국의 대기오염물질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도 촉진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중국 대기오염도에 기여하면서 국내에 일자리도 창출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울러 15쪽입니다.

한중 환경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환경장관이 한중 환경협력계획과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에 서명을 했고 금년 6월 중에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캐나다, 유럽의 예를 든다면 10~20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협약으로 체결된 경험을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과 신뢰를 쌓는 토대 위에서 이러한 협약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알리고 보호대책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환경 기준을 선진화하고 주의보·경보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실내 유지기준도 신설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일선기관에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이행점검이라든지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9년 이상 초과된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 LPG 전환사업이 작년 7월 추경에 편성돼서 서울을 시작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과학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R&D라든지 위성관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바라건대 특별법 제정이란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관측을 위해서 위성 탑재체가 제작되었고 환경위성센터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환경위성이 발사된다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PM2.5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71%에 불과한데 장기적으로 개선시키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의 설치라든지 배출량 개선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부 합동으로 만들어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범사회적 협의체로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발전·자동차·산업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추가적인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시민이 느끼는 정책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련 입법계획은 존경하는 강병원·송옥주·임이자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률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잘 반영되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쪽, 각 부문별로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미세먼지 관련된 비상저감대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시에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도라든지 우리 부서 이러한 부분에서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7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배부된 긴급현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 사항입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15일 날 공공 부문이 좀 출선수범하자,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공공 부문이 출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3개 지자체가 합의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했고 작년 12월 30일 날 첫 발령 이후에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 요건을 보면 만약 오늘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실측치가 나쁠 경우 그리고 내일도 나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오늘 5시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차량 2부제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 단축 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저감조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도권 전체에 CBS(재해문자)가 발송되는 수도권 전체 발령 요건, 그리고 서울시만 하고 있는 서울형 발령, 이런 세 가지 발령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 월요일에 발령됐던 건 수도권 공공 발령에 해당되고 서울형 발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5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에 해당되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월요일이 평일인 관계로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발령요건에 보면 당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

후 4시까지 미세먼지 PM2.5의 농도가 나쁨 기준을 다 초과했고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4개 예보권역에 모두 나쁨 것으로 예측되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 검토를 보면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지 않았으나, 그래프에 보시듯이 오후 1시까지는 고농도 발생 이전으로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오후에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출근하는 시민들이 좀 혼란을 겪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루 평균에 있어서는 나쁨 예보한 대로 나쁨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높아져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71%로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무료 단독 시행과 관련 사항입니다.

경기, 인천, 서울시 모두가 비상저감조치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중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차량 2부제 동참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 부분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공동 시행을 위한 합의 노력을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단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 방안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확대 또는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쪽입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공사장·사업장에 민간 부분들은 빠져 있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비상저감조치제도를 설계할 때 법적 근거는 없지만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제도 취지에서 했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하는데 민간 부분을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나서서 솔선수범하자 이렇게 하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 보완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이어 오늘까지 세 번째 위낙 짧은 기간에 고농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담당 국장으로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월요일 오전에는 굉장히 좋았고 오후에는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혼선을 가져 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량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발령요건이라든지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당초 예보 제도 설계 시에 하루 전날 오후 5시 15분에 발령한 이유는 공공기관에 최소 1시간 정도는 공지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3개 지자체랑 다시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참여 안내 및 홍보인데, 지적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널리 더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나오셔서 인사말

씀과 참석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존경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감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국외 영향과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이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분철 가동 중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단기 대책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중장기 대책들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최종 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정부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원 안전환경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국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환경부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의 그동안의 경과입니다.

1년 전의 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 특별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당시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공약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3

호 업무지시를 통해서 응급대책으로서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간 셧다운토록 하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기획운영자문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9월 26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정책 간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 12개 부처가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작년 10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이행점검 TF를 구성해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과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쪽의 종합대책의 추진체계와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환경부에서 보고드렸듯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산업 등 주요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 국제협력, 민감계층 보호, 정책 기반 등 4개 분야에 20여 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고농도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로서 작년 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한 달간 셧다운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셧다운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상황 발생 시에는, 오늘도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민감층의 보호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어린이나 학생 등 민감층의 활동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체육관 없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실내체육시설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4페이지의 중장기 대책입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발전 분야에서는 석탄 화력 퇴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로드맵은 작년 연말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총량제를 수도권 이외의 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는 등 강력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생활 분야에 있어서도 도로청소차량을 2배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변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로 올리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의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 초기단계부터 추진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관계부처 합동의 점검 TF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종합대책에 나온 세부 이행계획을 58개 과제로 규정하고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 방법은 각 부처가 일차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확인·점검하는 한편 총괄평가를 해서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평가결과는 국무회의 또는 현안점검회의에 조정해서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종합대책 중에 실효성이 부족한 과제는 내용을 보완하고 또 새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4/4 분기에 시행한 결과를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 각 부처에서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 1월 중에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필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면 국무조정실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건 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존경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와 각 정부 부처들이 모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누구에게나 해롭겠지만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체육이나 현장체험처럼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이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교육부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의 주요 과제인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경각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외수업을 하거나 창문을 개방하는 등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유·초·중·고 학생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실내체육시설 확충과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

치, 교실 내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2쪽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입니다.

교육부 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실외수업 대체수단 확보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실외수업 자체 기준을 강화하는 등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와 교육청, 학교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연수를 매년 실시하여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년 학기 초에 보건용 마스크 사용방법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요령과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계기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6차 시 이상 진행되는 재난안전교육에 미세먼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정책입니다.

교실 내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PM10만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커지고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공기질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초등학교 약 650여 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화장치의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이를 근거로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기준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예보 것발, 미세먼지 농도 예보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 구성원 간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외수업 대체수단 확보 정책입니다.

17년 12월 기준 전국 초중고 1만 1786교 중에서 617교가 실내체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 체육관을 설치하는 등 실내체육수업 여

건 개선 정책은 19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실내체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운영하고 유희 교실, 특별실 등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수업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실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정책입니다.

시각적 효과를 높인 학생용 미세먼지 발생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학급 비치의 의무화하였고, 향후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웹툰, 동영상 등의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자료실에 미세먼지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용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미세먼지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응 조치 상황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 3월 중 교실 내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설치기준을 마련,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전 사회적인 협조와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희권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김승희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도 서울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세먼지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작년 9월 마련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제·예산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자료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이미 관련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크게 세제와 예산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제 분야에서는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을 검토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로 이미 작년 12월 국회를 통해서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이에 이어서 현재 실무 TF를 운영하여서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 세제 부담금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서 환경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총 7.2조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약 2800억 원 증액된 1.2조 원, 전년 대비 31.5% 증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고 사업과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청정 대기를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산업·에너지·수송 부문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산업·에너지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진 산업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80% 이상이 발전·수송·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전에서는 석탄 발전이, 수송에서는 경유차와 선박 운행 과정에서, 산업에서는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전에서는 석탄 발전 축소 등 친환경 발전을, 수송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에서는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작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8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산업부는 발전·수송·산업 분야의 21개 과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 축소 및 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은 운영 단계별로 친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의 경우 조기 폐지 일정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10기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봄철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월 한 달 동안만 시행하였지만 올해는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운영 중인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발전 수준의 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석탄 발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규 전력 수요는 LNG 및 양수 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48.7GW를 보급하고, 이 중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친환경차 구매로 관련 시장 창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연료인 LPG 연료 사용 가능 차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기자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계의 친환경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환경 규제 이행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사업장

을 대상으로 환경 컨설팅과 함께 친환경 청정 생산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석탄 발전의 경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세율의 추가 조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도지사가 발전사에 석탄 발전 상한 계약을 요청하는 방안에도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친환경 차종별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1t 전기트럭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차 차종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6페이지입니다.

충전 인프라도 환경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심의 주요 지점, 아파트 등에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LPG 사용을 위한 LPG 이용·보급 정책을 올해 안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계와 친환경협의체를 운영하여 산업계의 친환경 투자 확대 및 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건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로 미래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OECD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 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국민보건 책임 부처로서 건강 영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국민들께 미세먼지 피해와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환자 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직접 만나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예방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 노출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염려하시는 만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은성호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영향 관련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미세먼지는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각 기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심혈관·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년 1만 명 이상이 실외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경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물질 노출에 의한 조기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2014년부터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학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련된 관계 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통하여 국민건강 주무부처로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영향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부와 협업하여 어린이집 용·어르신시설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동영상과 인포그래픽을 통해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건강 영향 리플릿과 의료인 대상 환자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건강 취약계층에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 방향 및 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로 주기적인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 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매 5년마다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바 있어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건강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과 건강취약계층 관리자에게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관리방안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미세먼지가 태아 또는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 의료정보를 활용한 주요 질환 발생 연관성 분석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과 예방관리방안을 연구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수립되어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는 국가전략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부처 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주무부처로서 미세먼지 건강 피해를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특위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친환경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의 CNG 차량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시외·농어촌버스에 CNG 차량을 도입할 경우 면허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조기 구축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센터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교통정책관 황성규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종합대책의 개요, 국토교통부 소관 개선과제 소개 및 과제별 주요내용, 진행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개요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개선과제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총 58개 개선과제 중 4개 과제입니다.

이 중 수소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 3개 과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과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선 과제별 주요내용 및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조기구축 과제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복합휴게충전소 160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전소의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통한 선 투자 후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금년 내 우선적으로 경부선·호남선 등 고속도로 휴게소 8개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대도시 노선버스의 CNG 버스 교체 과제입니다.

그간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버스를 매연 없는 CNG 버스로 교체하여 왔으나 전국의 CNG 버스 보급률은 약 5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CNG 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설이나 증차를 허용하도록 인·면허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광역급행버스부터 적용하여 작년 10월 인천-서울 간 2개 노선에서 CNG 버스가 도입되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신설 시에도 CNG 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과제입니다.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등 사전예방적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

구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서울·부산에 설치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마지막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과제입니다.

최근 도시의 경관 개선을 위해 설치한 중앙분리대, 보도의 화단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방지가 필요합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와 보도 설치 시 오목형 화단을 설치하는 등 토사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내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이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가급적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희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해숙**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위 간사 김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미세먼지특위가 개최되기 전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초당적으로 미세먼지특위에 대한 과제를 협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환경부장관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모두말에 ‘문제인 정부는 미세먼지특위를 국민의 최우선 과제로 수행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7개 소관 부처의 6개 부처의 장관님께서 중앙통합방위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차관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익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안 오셨다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제50차 동일한 회의에서는 다섯 분의, 기재부·농림부·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그 회의, 소위 중앙통합방위 회의에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의 49차 회의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장관 대신에 차관이 참석한 그런 회의입니다, 이 중앙통합방위 회의가.

그러면 아까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첫 번째 특위 회의에 이런 장관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차관님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이 정부의 의지가, 말과 행동이 다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주관하고 있는 이 중요한 회의에 다른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숙** 존경하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처에서 잘 들으셨지요?

앞으로 유념하셔서 꼭 잘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김재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환경부장관님, 오전에 네이버 소위 말해서 실검 순위 1위가 두산중공업인데 그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

○**김재경 위원** 두산중공업이 국내 유일의 원자로 건설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두산중공업이 자기들 경영 방향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엇그제 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들으니까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값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은 매각설이 돌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두산중공업

측에서 ‘매각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전에 실검 순위 1위가 두산중공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오륙 년 전에, 지금 산자부차관님 오셨는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뿌리산업진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산자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 뿌리기술이 일본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8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자료를 딱 넘기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가는 게 딱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선박엔진 주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정부 정책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팔리니 마니 하는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처의 장관님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 어려움이 없어요. 국민건강을 이야기를 하고 쪽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제일 안타깝고 갑갑한 게 아마 산업통상부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만들어 내야 되고 한편으로는 줄여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처라고요. 그래서 이인호 차관님이 오늘 굉장히 곤혹스러울 건데.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보를 내가 몇 개만 지적해 볼게요. 작년에 아마 기업에 노후 석탄 발전소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폐쇄한다 이러면서 급전지시하면서 정부 보상금으로 200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잘 아는 이야기지만 환경부에서 경유세 인상 추진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지,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배출금 부과하려고 지금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왜 산업 쪽 책임이나, 외부 요인이 많다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엿그제 15일 날 긴급대책으로 주차장 폐쇄하고 차량 2부제 하고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50억 들여 가지고 대중교통 지원하고 이랬는데 교통량 감소는 1.8%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 지적하니까 16일은 15일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서너 배 더 높았다는데 또 이것 방향 철회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좀 그때그때 미봉적이고 큰 흐름을 못 본다……

제가 여기에서 왜 원자력 이야기를 하느냐 이

거지요. 원자력이 좋다고 이야기할 정치인 아무도 없어요. 그것 자기 표 잃는 거고 지지율 다 잃는 건데 누가 원자력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필요악.

우리가 미세먼지를 위해서 석탄 발전소 없애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도입하고 하는데 좋다 이 거예요. 그런데 강력하고 지속적인 그런 전력 공급을 확보할 수 있어요, 풍력·태양광 이런 것 해 가지고? 산업 경쟁력이 확보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원전 없앤다 해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물론 원자력 발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산업 경쟁력과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게 균형 있게 정부 정책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전기차로 대체하고’ 이러는데 그 전기 그냥 나오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현실인데 화력 발전에서 석탄 빼고 이려고 나면 올라가는 전기요금은 누가 다 부담하냐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별 고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국토부하고 산업부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상충되는 고민을 안고 있으니까 모든 정책을 논의하는 데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두 부처에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아까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던 건 오래 전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아마 가장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작년에 노후 석탄 화력을 한 달간 셧다운을 과감하게 지시를 하셨고 특히 우리 전 국민이 요구하는 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된다, 중국에서 50% 가까이 미세먼지가 넘어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으셨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강병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서 국정과제로도 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잘 알고 계실 거고 각 부처별로 대응들도 착실하게 잘 짜고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고농도 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때 비상저감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부처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 왔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완해 가야하겠지만. 하지만 이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로서는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의 2부제만으로,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환경부장관님께 한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상상황 시, 고농도 시에 민간 차량까지 포함하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돼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공부문을 가지고 해서는 정말 앞도 보기 힘들고 정말 저녁 날씨 같은 이 심각한 고농도 시 상황에서 비상저감 조치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간에도 강제로 이런 차량 2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그렇게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

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 환경부장관님이 중심이 되셔서 국무조정실에서도 고농도 시에 비상저감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강병원 위원** 그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강병원 위원** 제가 차관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되게 실망입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한번 볼까요? 산업 부문 38%,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발전 15%, 수송 28%, 전체 국내 배출량의 81%예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보고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 차관님 발표하신 것 보십시오. 이 업무보고 자료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 마나 한 얘기만 써 놓으셨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뭘니까?

향후 추진계획도 한번 보세요. 발전 부문, 수송 부문, 특히 산업 부문 같은 경우는 38%를 차지하는데 산업계와 친환경협의를체를 운영하여 친환경 투자 확대 및 애로 해결 지원하겠다.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 이게 뭘니까?

미세먼지특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있으나 마나 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 부문에 관련된 대책이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빼고 저희가 기술개발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강병원 위원** 보세요, 전체 배출량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될 것이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의 81%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부 나름대로 하는 것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특히……

○**강병원 위원** 그런데 특히 산업 부문 같은 경

우 향후 계획으로 이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 확대하겠다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

너무 무성의합니다. 다음 보고 때 정말 제대로 된 계획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구체적인 내용이……

○강병원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흥권 예.

○강병원 위원 우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흥권 예.

○강병원 위원 한 15조 정도 걷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흥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그 배분이 교통개선특별회계가 80%, 환경개선특별회계가 15%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흥권 맞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게 일몰이기 때문에 작년에 경제부총리께서도 이것을 비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통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좀 남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흥권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병원 위원 그러면 그 남은 재원을 이제는 환경 쪽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흥권 예, 올 연말에 목적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다음 회의 때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대책들이 풍부하게, 방안들이 한번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최악의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OECD에서 2017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

원국 가운데서 환경 질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PM2.5 농도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4%가 상승하는 등 공기질 부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그 자체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지요. 천식 등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성도 있고요.

아까 계속 업무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에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앞에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감축 의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9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리고 작년 9월 26일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신규 석탄 화력 4기를 LNG로 전환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단기 대책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당진, 삼척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작년 12월 29일에 확정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보면……

다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했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중에서 7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2기만, 당진발전소인 것 같습니다, LNG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하는 것하고 결국 3개월 만에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말로는 석탄 발전 줄이겠다 했는데 석탄 발전이 계속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발표를 계속하면서 저감정책 현실화를 전혀 못 시키고 있습니다. 9기 중에서 없앤다고 했던 이 7기를 그대로 다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이렇게 획기적으로 감축을 하고 하려면 정부가 석탄 화력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명확한 감축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삼척화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척화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LNG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그런데 그대로 지금 전력수급계획에서는 반영을 했고.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삼화 위원**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산업부는 바로 며칠 전이지요, 금년 1월 11일에 최종 인허가라고 할 수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맞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몇 개월 만에 대통령의 공약하고도 전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이 삼척화력 승인이 포스코에너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후퇴시켰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승인 과정에서 산업부 관계자들이 삼척화력을 승인하지 않으면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제기하면서 승인을 해 줬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차관님.

그다음에 작년에 산자부 국감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위원님께서 장관한테 지적했던 부분을 보면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화력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 달라 이렇게 한 적 있지요? 모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확인을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이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논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 논의했어 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산업은행이 삼척화력에 대해서 금융 주선을 하고 있고 또 수조 원의 PF 대출도 조달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원래 석탄사업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파이낸싱이 필요한 상황이니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삼화 위원** 지금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답변을……

○**위원장 전해숙** 답변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답변을,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김삼화 위원**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해숙** 예,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삼척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LNG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자체가 LNG를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입지고요. 특히 또 삼척 주민들의 석탄 화력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강했고 기존에 이미 매몰된 비용이 굉장히 규모가 커서 이것을 보전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 위원님, 위원님 말씀, 지적에는 저희가 동감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신에 저희가 삼척화력을 지속적으로 석탄으로 가면서 지금 우려하신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구요. 추가적으로 당초 대책에 없었던, 기존에 지금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 4기를 추가로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LNG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도 저희가 전력수급계획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 삼척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영흥보다도 40% 이상의 그런 환경 관리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번 8차 수급계획에 저희가 친환경적인 수급계획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급전 순위에 있어서 기존의 경제성뿐만이 아니고 환경성을 중시하는 그런 식의, 친환경과 경제성을 조화하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급계획을 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또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봄철 기간 동안의 노후 석탄의 가동 중지 기간·대상도 확대를 했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달성……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급한 경우에 조절하는 데 있어서 석탄 발전의 상한 제약을 하는 문제까지도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게 그런 문제도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감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력 수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도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김삼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모든 방법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이것이 더 줄일 수 있는 양이 크다는 판단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 홍일표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홍일표 위원 서울시가 하는 이번의 비상저감 조치 차량 2부제하고 또 대중교통 무료 이용, 이게 지금 한 번 해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홍일표 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앞으로 계속할 만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

다. 일단 모든 정책의 초기에는 사실 정부가 효과가 있는 것만 가지고 정책을 도입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홍일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잘 신뢰가 안 간다, 이게 예산 낭비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근거에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한번 협조를 해 달라…… 모든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과학적 근거를 시민들께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부분 수송 부문에서 노후 경유차가 대기오염 발생의 주원인이다 하는데, 시민들의 승용차가 그런 게 아닌데 과연 여기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지금 서울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들은 무료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도 됩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 다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전국을 상대로 어떤 통합적인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이벤트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들을게요.

교육부차관님, 지금 현재 어린이 학교에다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아직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일표 위원 시범사업?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약 650여 개 교, 1만 3000실에 설치했다, 설치하는 계획이다, 지금 다 되지는 않았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시범으로 설치하는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다 됐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1만 3000개 교실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설치됐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홍일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은 154개 교, 부산은 83개 교인데 인천은 17개 학교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와요. 그렇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특히 약간 공기질에 조금 취약하다는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력발전소 인근이라든가 공단지역 아니면 도로 인근에 있는 학교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주고 개별 교육청에서 먼저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뽑아서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했는데 작년 2016년 6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보면 미세먼지 최악은 인천 남구, 포천, 평택 순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지만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도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인천에서 17개 학교인데 남구에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인천의 경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교육청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홍일표 위원** 이런 기사도 해서 그런 부분도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홍일표 위원**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영흥화력이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가장 최신 설비를 갖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얼마 전에 영흥화력발전소 인근에서 부녀회가 재배하던 배추 1800포기를 인근 화력발전소 석탄회 재가 날아들어 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어서 다 폐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알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얘기 들었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배출 기구에 그것을 설치하면 뭐해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재를 뒤집어쓰게 만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 시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대중교통 인센티브제도는 지금 초기라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1.8%의 감소 의미가 작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차 보급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소차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186억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어떤 정책을 초기에 투자할 때에는 초기투자는 단기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이 더욱 확대되거나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과학적 근거로 뭐를 들고 있는냐고 말씀하셨는데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수도권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해서 교통량이 19.2% 감소했고 농도가 21% 감소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차량을 덜 타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홍보로써 좋은 정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월드컵 때하고 지금하고 미세먼지 상태가 엄청나게 다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존경하는 홍일표……

○**홍일표 위원** 간단하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영흥화력 석탄 비산먼지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저희가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출 구역에 대한 살수도 강화하고 방진망 포설, 복토 작업 이런 것들도 최대한 빨리,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탄장에 대해서 옥내화 작업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환경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답변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환경부장관님의 행정부처의, 특히 중앙부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유사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공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 초기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나 계속 추진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련해 갖고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은 다른 부처가 하더라도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알고 관여를 해야 되고 아울러 다른 부처, 특히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재난으로?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황사로 들어 있고요. 황사는 PM10을 포함하고요. PM10은 PM10 이하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서……

○김승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황사는 황사일 뿐이고요. 미세먼지는 황사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제발 업무를 좀 똑바로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재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중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들어 있고 관련 상위법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환경부가 환경법령을 운영하는 방법은 최소기준을 환경부가 정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강화된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건에 따라서……

○김승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김승희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미세먼지가 안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도 그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는 ‘미세먼지 포함’ 이런 식으로 들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위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법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가 시정 홍보를 하고 문자 발송을 했다면 이 또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장관 김은경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 취지는……

○김승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은 법적 다툼을 하면 되는 거고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렇지요.

○김승희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방송에 따른 문자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자 발송이 유료예요, 무료예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것은 무료……

○김승희 위원 뒤를 보시지 마시고요.

이것 보도자료도 같이 뿌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뿌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료예요. 이 무료라는 건 뭐냐 하면 불필요하게 재난문자 발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통신사에, 기업이지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정부가 감안을 해서 불요불급할 경우에만 문자 발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서울시정 홍보에 저는 환경부가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을 했는데 그것을 용인한 게 환경부장관이에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

○**김승희 위원** 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승희 위원** 환경부장관님이시라고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희 위원** 그리고요 이 재난이 지금 자연재난입니까, 사회재난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사회재난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황사는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황사는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앞과 뒤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황사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다며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재난이라 그랬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분류상에……

○**김승희 위원** 그래서 앞과 뒤가 맞지 않고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우선 아까 드리려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환경부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사나 또는 PM10 이것이 재난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법을 해석해서 서울시가 그런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모법들을 조금 더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희 위원** 장관님, 지금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대답하는 게 질의가 아니에요. 위원님이 질의한 포인트를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미세먼지가 재난에 속하냐 그랬더니 황사가 속하기 때문에 재난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황사는 자연재난이에요. 제가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그랬더니 사회재난이라 그랬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고요.

법적인 다툼은 환경부장관님이 해석한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혜숙** 정리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충남 아산을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자랑스러워하셨던 모습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환경의 기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모든 보고자료를 봐도 우리나라의 생산량, 즉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기가 30% 좋아집니까,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강훈식 위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겠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강훈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것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께서 대통령이 의제로 이야기했다는데 그 뒤로 환경부에서 팔로우 업(follow up)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있습니까? 대통령의 의제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중국과 논의한 환경 관련된 논

의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중국하고는 제가 대통령 순방 시 수행을 해서 현지에 가서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석탄산업발전소에 실증사업을 한 것들을 보고요 그걸 현지 기업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앞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장관님, 그건 제가 업무보고 때 봤는데요. 제가 문제를 지적시키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우리나라가 주최해서 근 2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작년에 우리 장관님도 다녀오셨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렇지요.

○**강훈식 위원**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규제가 되고 무언가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국내에서 30% 줄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점검하고 국회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 점검을 하는 이유는 중국한테 국제적 기준을 맞추자고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30% 줄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같이 줄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0% 줄이고 동시에 중국도 이 협력에 같이 들어와서 환경장관회의에서 이 협력적인 걸 강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서서 정상회담에서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앞으로 있을 환경장관회의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보고를 제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그러면 중국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언도 하고 협력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환경부가 어떤 팔로우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목표가 같이 설정이 돼야, 즉 국내를 30% 줄였다는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봤더니 실

제로 한강의 기적처럼 환경의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인 정부의 환경이 중국 문제까지 적극 협력을 받아서 30%가 좋아졌다 이 결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플랜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장관님이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는 또 환경장관회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장님 대신해서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나오셨는데요.

미세먼지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

○**강훈식 위원** 모르시는 거군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지금 현재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돼 있고……

○**강훈식 위원** 주무부처는 환경부고……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부처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이 다양한 레벨의……

○**강훈식 위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작년 5월 달에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TF를 만들자고 지시를 하셨고 그 뒤로 그 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국무조정실에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와대입니까, 아니면 국무조정실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환경 문제를 제일 큰 의제 중의 하나로 챙기고 계신다는 차원에서는 청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의 이견 조정을 하고 속도를 배가시키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TF를 국조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모든 문제는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심돼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제가 여쭙 보는 건 그런 실무적인 이행 집행을 컨트롤하는 건 국무조정실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컨트롤타워가 이행 점검을 분기마다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들을 속도를 내게 하고 있고 구체적 추진 성과를 만들어 내는 대안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부가 주무부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조정실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원활하게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무부서이고 실무적 컨트롤타워라면 보다 더 구체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강훈식 위원 꼼꼼히 안 챙기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도 질의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훈식 위원님?

중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올해 한중 환경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국장이 가서 그쪽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양측의 목표를 담는다는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이미 13년부터 17년까지 30%를 저감한바 있고요. 지금도 대기오염 저감에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강력하게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실증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실무선에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에

요. 국무조정실은 청와대, 대통령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기 전에 제가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고 본발언을 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다들 없으셔서요.

○김현아 위원 아니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이 되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세먼지특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남은 기간 동안 각 부처별로 보고만 받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저희가 이 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의제 선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가장 먼저 잡았던 것은 뭐냐 하면 부처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이 법을 여야의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빨리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특위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현장에 가서 부득이하게 자꾸만 부처 간 공무원들 일하는데 방해하고, 그것만 갖고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다음의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위원장과 간사께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제가 반복적인 질문인데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는 대중교통 확대를 위

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말한 두 가지의 답변 중에 그러면 어느 하나로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환경부장관님 인사말씀 중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자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돈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사례를 각각 예로 들면서 다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난해 1월 파리가 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고 재정 손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해서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폐지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맞다고 합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출퇴근 시간에 돈을 더 주게 되면 그 시간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에 이용하는 교통로라는 게 대부분 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배차 간격이라든가 차량 증설과 같은 또 다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전체적인 교통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자체가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저희 학령인구가 줄고 폐교도 늘어나는데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 시설의 시급성은 인정하는데요. 인근 중·고등학교 유휴 실내체육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 갖고 있는 유휴 실내 공간을 시간적으로 활용하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부족하다고 다 새로 만들어 주고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고 오래 참아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이 특위에서 지적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케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취약계층이야말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가계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구입 부담을 줄여 준다거나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가 가셨나 보네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내체육시설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대기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나쁨’ 이상 되면 실외활동 자체를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깥으로 또다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서 체육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제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저희가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강당을 모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크기라든가 향후 그 학교 학생 수가 준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간이 실내체육시설을 넣는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강당을 넣는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대응을 감안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때로는 교육활동 차원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고 익히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실내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공사 기간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게 적합한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해서라도 인근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김현아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부처마다 중장기 검토계획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뭔가 이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보다 마이크로(micro)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교통량이 특정 시간에 몰려서 인프라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대에 자가용이 많이 몰리면 인프라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인프라 부분은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중교통 차량을 약간 증편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도로라든가 인프라 문제는 오히려 그게 더 해결되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혜숙** 예.

○**강병원 위원**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 질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만 차량 2부제를 하는 것으로는 비상조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민간부문까지 강제 2부제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던 것이었고, 대중교통 요금 무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그 부분 지적 안 했는데요?

○**강병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닌데요.

○**위원장 전혜숙** 우리가 오찬을 위해서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확실하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최도자 위원** 부처가 많다 보니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인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전체 이행 점검하는 것은 국조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챙기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최도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크게 국외 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각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국외 영향이 50% 내외라고 합니다. 고농도 시에는 국외 영향이 최대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의 공동연구 결과에서는 국외 영향이 48%, 국내 배출이 52%이고, 특히 중국 내륙 영향이 32%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외, 특히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이 작지 않음에도 그동안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도 종전 대책의 반성 및 평가를 하면서 미세먼지 국외 영향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최도자 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한

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미세먼지 공동저감’이라는 내용으로 주요 의제 가운데에서 경제·통상협력의 하위항목으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장관급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위항목이 아닌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열릴 한중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 의제로 격상되어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최도자 위원 약속은 지켜야지요. 대통령 공약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최대한’이 아닙니다. 기필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방금 보고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보고하실 때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 지키세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최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세먼지특위 1차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저출산대책특위도 하면서 느꼈는데 늘 부처가 보고하는 방식은 똑같고 부처의 주요 국가 어젠다의 대응 방식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아까, OECD에서 2016년에 예측한 2060년 대기오염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국가라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보고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우선순위로 취급되어야 될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3호 업무지시를 내렸고 7월 19일에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9월 26일에 아까 국무조정실 차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12개 부처가 합동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립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전혀 실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기구 신설이 TF팀으로 대체되는 것인가요?

조정실 차장 대답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지금 현재는 총리실의 관계부처 TF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보니까 TF를 구성했다 그러고 끝이네요.

그다음에 한 번도 TF 회의 안 했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TF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TF의 구성원은 전부 다 정책관들, 실장 이런 직급입니다.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어젠다로 정리하면 주무부처가 아무래도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될 텐데 환경부 중심으로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출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일본에 저출산장관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특별 장관을 만드는데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힘을 빌려서 더 추진력 있게 업무과제를 추진했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부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실 산하의 TF는 정책관 수준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특별 기구를 제대로 신설하는 것을 조속히…… 지금 여기 환경부장관만 장관급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시고 또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컨트롤타워가 어디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특별 기구를 어떻게 설치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요. 아까 비상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요금 무료 단독 시행을 했는데 보완 방안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확대 조정하겠다, 확대 시행 의지를 밝혔어요.

그런데 환경부장관께서는 프랑스가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파리가 왜 이 정책을 2014년부터 16년까지 실시하다가 중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왜 파리가 중단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단기적으로 아마 성과 문제가 이쪽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슈가 돼서 그만둔 중단 대책을 우리는 환경부에서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장관께서는 도대체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정말 예산상은 어땠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아까 답변을 뭐라 그러셨습니까? 처음에는, 정책이 그러니까 결과가 좋겠지요?

아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씁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시가 하루 대중교통요금 무료로 하는 데 50억 듭니다. 50억이면 노후 트럭 1000대에 배기가스처리장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착할 수 있는 돈입니다.

파리는 당시에 6% 감소에 불과했다고 보고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실패해서 중단한 정책을 차용하면서 ‘겠지요’가 됩니까, ‘겠지요’가?

대강 그것 팬찮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합니까?

환경부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

1분만 더 주시지요. 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아니요, 시간은 그대로 정확하

게 지키시고 추가질의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책 마련하고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했는지, 왜 파리 정책이 좋다고 여기에다가 보고했는지 파리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대체, 환경부장관하고 오늘 모든 부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하고 비슷하게 위원회 공화국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수 모든 부처에 TF팀을 구성하면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무원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꼼꼼히 챙기느냐, 전혀 그 부분에 의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국무조정실 차장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는데 TF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강 영터리로 답변들 하시지 말고 공무원들 제대로 일하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사실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TF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관계하고 다르고……

○**나경원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저희 의원실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아닙니다. 키오프 회의를 10월 달에 했고 그때 당시에 58개 과제를,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지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10월 27일 회의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10월 27일 회의 이후에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27일 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과 플랜을 다 짜서 공유를 했고……

○**나경원 위원** 10월 27일 회의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4/4분기 이행계획을 1월 중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전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경유차라든지 시설이나 도구 중심의 접근보다는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들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성과들을 분석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더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환경부 김은경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국무조정실 제2차장님이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임이자 위원 차장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국무조정실이 맞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전략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차량 자

율 2부제를 도입하면서부터 무료 요금을 서울시에서 대 주고 있는데 이미 50억은 발생됐고요. 또 추후에 발생될 금액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100억은 족히 넘겠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이틀째 발령됐으니까요.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께서는 오전 질의에서 계속 이걸 확대시키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오전에 환경부장관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미세먼지를 최대한 절감시켜야 되겠다는 그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이 정책이 바람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되는 데 동의하시느냐 이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바람직한 측면은 있지만 관련부처나 지자체 간에 완전히 합의를 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자체의 조치만 봐서는 이게 완벽한 조치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말씀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정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파리에서 시행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스톱되어야 된다, 또는 차라리 50억으로 저감장치—DPS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1000대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1000대를 부착하는 게 낫다, 아니면 대중교통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된다, 또 혹자들은 시장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상위법 위반이다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별론으로 하고라도 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제2차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내가 여쭙겠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고 하면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실내공기질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최소가 얼마이고 최대가 얼마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뒤에 대한 최소·최고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임이자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의 PM10, PM2.5는 아예 없습니다. PM10에 대해서 최소 기준과 최대 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비상조치 발령 기준은 5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건 실외입니다.

차장님, 원래는 실외보다도 실내가 기준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실외보다 실내가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보면 실내공기질이 100에서 200이고,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150 $\mu\text{g}/\text{m}^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로 공기질이 나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공기질이 가장 나쁘고 지하철뿐만 아니고 버스 또 철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기질을 측정하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철도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맞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영역이 시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마시고요.

맞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다만 1호선에서 4호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85 $\mu\text{g}/\text{m}^3$  나옵니다. 물론 다중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 관리 기준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외와 비교했을 때는 1.8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무조건 지하철, 버스 타라고 한다면 또 다른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갔어야 되는 게 옳은 거지 포퓰리즘식으로 먼저 돈부터 주고, 무상으로 주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50을 가지고 살수 차량을 20대 이상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암을 치료하는데 소화제만 먹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차장님도 실내공기질 관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고 이 부분을 믿고 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위원 답변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전해숙 답변 받으실 것 있습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조정실 차장님……

○위원장 전해숙 좀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임이자 위원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취지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보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됐습니까?

○임이자 위원 예.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혹시 ‘삼한사미(三寒四微)’라고 들어 보셨어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요즘은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는 아주 적나라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짝수 차량이어서 차량 2부제에 참여했습니다. 장관님은 참여하셨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는 전철 타고 왔습니다.

○송옥주 위원 잘하셨습니다.

공직자하고 공공기관, 국회의원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 출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5일 날 서울시에서 한 저감조치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

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예보의 정확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까 합니다.

현재 예보가 다음 날과 그다음 날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치, 하루 단위로 발령하고 또 오전과 오후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가 14일 예보를 발령하면서 15일 오전이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했는데 막상 15일 오전에는 보통이었고 오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중국 탓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송옥주 위원** 예보는 최대한 정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단위로 할 건지 오전과 오후로 예보치를 제공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와 저희 정치권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견해가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미세먼지 예보제도는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송옥주 위원** 정확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모델링이 격자가 3km×3km로 되어 있어서 너무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m×10m 수준의 초고해상도로 바꿀 필요가 있겠고요. 또 현재 8명에 불과한 예보 인력을 최소한 2배 정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예보가 시도를 기준으로 해서 19개 권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경기도와 강원도는 2개로 나누어 있고요 서울은 1000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권역이고 경북은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보 권역을 한 30개 정도로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보 권역이나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점차 개선해 가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옥주 위원** 꼼꼼히 체크하셔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오염도와 예보치가 맞아 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제가 환경부 국감에서 미세먼지 측정 장치의 위치와 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가 지난해 말

에 10곳의 측정소를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적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체감도와 실제로 측정 결과가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10곳에 대한 측정소 중에 7곳의 측정소가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송옥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에 있는 측정소까지 방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측정소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기준인 1.5~10m 사이로 돼야 되는 거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20m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m가 넘는 부분을 지난해부터 이전시키거나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난해에 6곳을 하고 올해부터 20곳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이전한 부분들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국민들이 아마 이 부분을 보면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측정소를 보니까 실제로 측정소 위치가 21m인데 20m 기준에 맞추려고 19.9m 높이로다가 측정소를 이동했어요. 알고 계시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보도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송옥주 위원** 10cm 낮춰 가지고……

이게 무슨 흡쇼핑도 아니고 김영관법에 의한 오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국민들이 이런 걸 믿고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마치고 하시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 2차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이행점검 TF를 구성해서 운영과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오해를 풀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환경부장관님 답변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듣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측정소를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사실 환경부 의도하고 다른 일들을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정하는 것들의 모든 상황들을 잘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이행점검 TF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종합대책에 발표되고 곧바로 한 달 뒤 10월에 관련부처의 이행점검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세부 과제별로 58개로 분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추진 일정이나 목표들을 재점검하고 이걸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 4/4분기의 대책을 1월 달에, 이번에 점검하게 될 거고요. 현 단계에는 작년 4/4분기……

○**송옥주 위원** 아직 점검한 걸 발표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 내용을 가능하면 국무회의라든가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 보고도 하고 점검 결과 부족한 부분,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까지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도록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실은 미세먼지가 가을, 겨울 사이부터 봄 사이에 많이 극성을 부리는 건데 TF를 의례적으로 분기마다 몇 번 회의를 한다 그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미세먼지가 극성 부릴 때 집중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연성,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걸 분기별로 하겠다는 거고요. 특이한 사안이나 지금처럼 심한 경우에는 더 자주 모여서 대책도 논의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송옥주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제가 국무조정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시에서 저감조치를 위해서 2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서울시에만 주니까 경기도에서 타고 오신 분들은 돈을 내야 되고 서울에서 경기도 가시는 분들 돈 내야 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효과가 나기가 힘들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해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국민들 여론도 나오고 하면 바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를 모아 놓고 이것에 대한 효용 가치,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빠르게 시행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인데요. 그 전에 인사말씀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인사를 안 했습니까? 전에 했는데……

○**위원장 전해숙** 저번에 안 한 걸로 나와서……

○**주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 실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특위가 가동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숙** 좋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장관님, 발표된 걸 보니까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대략 절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평소에는 30~50 또 고농도에는 60~80%가 중국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국내에서만 30%를 줄이겠다면서 우리 국민들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안 줄이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국내에서 30% 줄여도 고농도 시에는 10% 절감밖에 되지 않는 정도인데, 장관께서 지난 방중에 양국의 환경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대책을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 정도 차지한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거

나 제시하는 일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절반을 차지하는 이 대책 없이는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 오늘 회의나 정부 대책회의에도 외교부 당국자들이 참석해서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일단 방중 문제는 양국 정상들 사이에 미세먼지를 중요 의제로 하고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것에 따라서 환경장관들 사이에서는 지적하신 양국의 정보의 교류나 또는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단 없이 진전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호영 위원**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요 사드 문제와 비슷한 선상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국제적인 여론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와 일본이 같이 중국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이나 여러 가지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회의 내용을 보면 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미세먼지를 전제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건강 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말하자면 국민들의 행동지침이라든지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것 같거든요.

아까 보건복지부 보고 제일 뒤에 보면 눈에도 안 떨 정도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 보면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정도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환기는 얼마마다 시키는 게 맞는지, 말하자면 아주 나뽀일 때도 환기를 시키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마스크는 어느 정도 쓰는 게 맞는지, 무슨 KF인가 지수가 높으면 호흡하기도 어렵다면서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나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예방의학회에서도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민감계

층의 이용시설 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만 신설할 뿐이고 없다는데 그 점을 또 같이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 그래서 사실은 물 맑고 나라가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데 여기에는 맑은 공기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미세먼지 기준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도 성에 안 찰 지경인데 이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못 한 것 같아요.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50에서 30으로 변경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걸 낮추면 아마 나뽀 기준이 연간 30일에서 100일로 와서 정부에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가 쉬운데, 이 기준은 아무리 강화해도 과하지 않을테니까 적어도 국제기준이나 이웃나라 기준 정도로는 우리가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될 때 산업 쪽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로 산업들이 미세먼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는 여론들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일단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러는데 어느 언론에서 시민 한 사람을 인터뷰하니까 교통비 삼사천 원 아끼려고 나뽀 공기 마시러 밖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공기가 나뽀 때는 자기 차를 타고 바깥공기를 안 마시고 집에서 나와서 바로 직장까지 가는 게 좋지 차를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목표하고 현실하고는 영 다르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는 게 또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은 지상의 공기보다 훨씬 더 나뽀서 기준치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말은 달리 보면 결과적으로 매우 안 좋을 때 시민들로 하여금 나뽀 공기 마시고 다니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목표와 정책의 엇박자를 빨리 고쳐야 된다.

아까 경기도나 인천하교의 관계도 그렇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도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말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를 않아요.

호소하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호소해야 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전부 종합점검하셔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게 아마 현실적인, 국민들의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기의 기본 농도를 높여 놓는다면 그게 자동차 내나 가정의 실내공기나 다 배경 농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국민들이 함께하셔야 되는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시키는 과정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지하철과 버스의 대기오염 부분, 실내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정책을 만들어서 지하철 공기 개선방안도 내고 있고요, 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주호영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수칙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강해서 만들겠다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민감계층, 특히 어린이라거나 노인 또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각 기관별 그리고 의료기관하고 협조해서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답변 뭐 안 해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저희는……

**○위원장 전혜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대기질 경보 발생 시에 시행하던 2부제 중단하고 또 2부제

와 연계된 대중교통 무료를 중단한 사실이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오염심각도에 따른 등급별 차량 제한을 도입해서 4~5등급 정도의 운행 차량은 프랑스 파리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2부제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무료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맞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부제를 대신해서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2부제는 폐지해도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2부제 강제 시행이 되거나 하면 인센티브 제도들은 폐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됐던 제도를 폐지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장관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따르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평상시에는 중국, 북한, 국외 영향이 30~50% 또 고농도 시에는 60~80%가 국외 영향이다 이렇게 발표하바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국내 배출보다 국외 영향이 더 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국내 추진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발전·산업·수송 부문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미세먼지가 외부 요인이 크더라도 국내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대기오염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국내 정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30%를 저감했고 이후에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저희가 중국과 환경협력 5개년 계획들을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유럽, 북미 50여 개국이 1979년도에 이미 월경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협약을 체결한 바 있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79년도에 이미 그런 협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고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제협약 단계로 조속히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희가 그래서 동북아 지역 전체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협약체계를 작년년부터 시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유동수 위원** 이인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부가 발전 부문에 대해서 22년도까지 감축률을 20%로 정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석탄 화력에 대해서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238TWh인데 2022년도에 233TWh란 말이에요. 5TWh밖에 안 줄어들어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전체적인 경제성, 환경성 저희가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낸 숫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로는 발전량이 크게 줄지 않는데 미세먼지를 20% 줄인다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전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유동수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를……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에너지수급계획 등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석탄 발전 절대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석탄 화력발전소 9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7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대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예정보다 빠르게 폐쇄하겠다 이런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전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수립되어 있던 노후 석탄 화력 가동 중단계획을 수개월 또는 한 1, 2년 앞당긴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가면 전체 석탄 화력발전소 수는 변함이 없고, 또 봤더니 발전설비 용량은 2017년에는 36.8GW인데 2022년에 가면 42GW로 5.2GW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석탄 발전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한테 여쭙볼게요.

환경부가 석탄 화력발전소 관리를 강화한다 하면서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래서 작년 10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셨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삼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지금 양이 많아서 몇 개만 해 봤는데요. 환경부에서 제출한 배출허용기준 관련한 2016년 평균 농도 비율입니다.

먼지는 평균 19.5%밖에 배출을 안 해요. 질소산화물은 얼마인가요? 54.6이고, 황산화물은 33.9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 표를 보면 결국에는 먼지는 5배, 황산화물은 3배, 질소산화물은 2배 정도 기준 강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행규칙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먼지는 2배, 황산화물은 1.7배, 질소산화물은 2배 정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기는 뭐예요?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앞의 여러 석탄 발전소들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허용기준보다도 적은데, 거기서 별로 노력 안 해도 지금 이 기준으로 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 상태 유지해도 별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대로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을 두게 되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지금 배출기준하고 배출부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배출기준보다 낮춰서 할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배출기준보다 아주 낮게, 한 30%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배출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만들어 놓은 이 새 기준에 다시 30% 이내로 기준을 맞추게 되는 것으로 제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아직까지는 부과 안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삼화 위원** 질소산화물이 보니까, 지금 국회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에서 발전시설하고 시멘트 제조업종에서 나오는 것이 75%가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황산화물,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83년부터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이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98년부터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도 검토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의원실에서 작년 6월에 요청을 했더니 작년 하반기에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는 금년 하반기, 1년이 또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로 또 3개월 만에 뒤로 밀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글썄, 금년 하반기에는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20년 이상 98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해 오던 것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미세먼지 30% 저감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계속 이렇게 또 미루고 이르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는 정확하게 다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위원님, 저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큰 부분이어서 의견 조정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금 거의 의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여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하신 것인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삼화 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환경과 기업 사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환경부장관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OECD에서 2017년 삶의 질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7.9 $\mu\text{g}/\text{m}^3$ 로 가장 나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 13.9 $\mu\text{g}/\text{m}^3$ 의 2배 수준 이상이고요. 저 자료화면에 나와 있지요.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9월 26일 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자료를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 PM10 농도가 2012년도에 전국 평균 45에서 2016년도에 47로 증가했고요. 또 조금 내려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현황도 2016년도에는 서른일곱 번이었는데 2017

년도에는 68차례, 그러니까 더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지금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을 통해서 좀 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봤어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도 2014년 자료까지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발표를 할 때 3년 전 자료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빨리 자료를 모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제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출량을 조사하는 배출원 관리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에너지산업 연소라든가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등 13개의 배출원을 분류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오염물질 배출원을 살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배출원이 같아야지 경향을 볼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이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해 볼 수 있지만 뭐든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샘플의 수가 많아 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염물질 배출원이 2012년도에는 426곳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419곳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과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약간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해서 배출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세계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가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을 모두 추가할 수는 없지만 또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 영역은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는 정책과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공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지금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환경부가 어느 정도 이것 예측 가능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집행되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있었 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가 정말 다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담당 인력을 봤어요. 3년 전 2014년 말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굉장히 최대 과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현원까지 줄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부장관께서 신년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하셨는데 그 신년사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년사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신년사에서 이 부분은 언급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환경부장관님,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자료가 제출이 늦어지는 점들은 저희가 공식적인 배출량을 집계하거나 이런 시간이 약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3년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즉시 모니터링 결과가 올라가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배출원 관리 대상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배출원 관리 업소는 배출량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임의로 똑같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책들이 시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초기 시행이니까 한 1년 정도 해 보고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시물레이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료를 넣어야 시물레이션이 되는 것인데요. 아까 오전에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프랑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6%의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19% 정도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저감시켰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 정책이 될 경우에는 이 제도가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도입하는 것은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결과를 보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년사에 제가 미세먼지를 넣지 않은 것은 제가 조금 사려 깊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세먼지나 이런 정책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정책을 실현해 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한번 실행하면 5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실험하는 정부 그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장관이 신년사에서 얘기하는 그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한, 아주 굉장히 세밀한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환경부장관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기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소차 정책을 보면 여기에서 기대되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저감은 0.00008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 정책이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더라도 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꼭 그렇게 단기적인 효율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만이 정책이 정의로운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희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짜 대중교통을 시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환경부장관은 이 부정적인 견해도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수정하는 데에 반영할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계속 같은 말씀 반복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께 질의 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자부가 최근 국회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나온 내용과 좀 상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근거 때문에 달라지는지, 한쪽에서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22년까지는 인상 거의 없고 30년까지도 인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근거와 차이점을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다음 환경부장관님, 혹시 서울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무슨 의도에서 하시는 질문이신지.....

**○김현아 위원** 오늘 저는 장관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선입견을 갖고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 미세먼지특위를 하면서 환경부장관님이 환경부장관님으로서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서울시장님의 답변인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단정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양단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의 답변은 시종일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쪽으로 굉장히 변명적으로 나가고 계시고요.

제가 오전에 파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파리는 이것을 지금 중단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파리가 이것을

왜 중단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면서 계속 파리에서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절감됐고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도 해 봐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는 되게, 장관님에게 제가 기대했던 장관님의 답변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장관님이 아시는, 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 외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일반적으로 수요관리라는 방법들을 쓰지요. 자동차 진입을 못하게 하는 구역을 넓힌다든지 또 대중교통 아닌 차들이 진입할 때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환경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실은 비교우위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 대중교통 정책들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국가정책 전체는 그렇고요. 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중교통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실행된 것은 아니고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관님의 멘트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여력이 대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 누가 실시를 했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여기에 힘을 실어 주시는 얘기를 하시게 되면 무분별하게 확산이 됐을 때 저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저희가 이 농도가 넘었을 때에 비상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날짜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농도 50 기준으로 초미세먼지가 많았던 날을 일수로 따지

니까 20일이고요, 그다음에 농도를 35로 낮추면 64일입니다.

저희가 농도를 낮추었을 때 그러면 서울시가 적어도 50일 이상 이런 발령을 내야 되고 그때마다 이 대중교통 무료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간헐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도 지금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부는 여러 대안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돈을 쓰더라도 이 돈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또 산업 관계자들이 뭔가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 요인까지 이어져야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지 그 일시적인 효과만 갖고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의 연구 방향도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찾을 때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를 주는지 이런 멘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국회에 처리 요청하시는 법률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미세먼지 특별대책법이나 대기오염지역을 확대하는 법, 대기오염 방지법이지요, 그런 것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님, 제가 1차 질의 때 왜 차장님께 실내공기 관리기준에 대해서 최소치와 최대치를 질의를 했냐면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TF팀을 꾸려서 회의를 얼마나 했느냐, 나경원 위원님께서 회의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확인차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장께서도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국무조정실 2차장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사활을 걸고 하는 정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F팀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국무2차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른

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 그러면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하면 뭐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실망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외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큼니다. 맞지요? 거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도 그만큼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서 무료요금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대중교통의 공기질이 우선적으로 더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왜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 나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께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꼭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 때 아주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큰 문제인데요.

장관님, 마스크 관련돼 가지고 제가 국감 때 질의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임이자 위원** 질병관리본부장님, 우리나라에 호흡기질환자가 1년에 몇 명 정도가 병원을 방문합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폐질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이자 위원** 한 478만 명 정도가 병원을 방문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미세먼지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임이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마스크를 보게 되면 이 마스크에,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KF 뒤로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호흡하기가 곤란하고 호흡곤란이

왔을 때는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쇼크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임이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판매하는 것을 보면, 왼쪽에는 저렇게 마스크 자체에 경고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고 곁에 비닐봉지에 이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팩 안에 저렇게만 돼 있고…… 누가 저것을 보겠습니까, 뜯어 가지고 그냥 버려 버리지.

그러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런 것도 소홀하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주의사항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바꿔라라고 제가 환경부장관께 국감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식약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같이 업체하고 의견들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제 저렇게 개선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교육부차관님,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대응요령이라든가 대응 관련돼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임이자 위원** 교육하시다 보면 저런 부분들도……

차관님도 저것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항상 미세먼지 관련돼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살인자다, 뭐…… 진짜 가슴기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걸려서 늦게서야 그나마 원인이 좀 밝혀지고 있지만 이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군 발암물질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은밀한 살인자, 더 나아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더 위험할 소지가 있고, 지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0만 명당 23명 정도가 미세먼지와 관련돼 가지고 사망한다고 하니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김춘란** 예.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

○**위원장 전혜숙**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산자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김삼화 위원** 제가 오전에 작년 국감에서 석탄 화력발전 공적 금융기관 금융지원 축소와 관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김삼화 위원** 혹시 알아보셨는지하고 그 관련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단 국감에서 지적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가 확인했고요. 후속조치 관련된 것은 자료로……

○**김삼화 위원** 예, 관련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오늘 질의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미세먼지특위가 국회에서 이렇게 위원회로 만들어진 것은 연일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숨 쉴 권리를 잃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적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시가,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자체라도 우선적으로 이렇게라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푸른 대한민국’을 표방을 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정의하는 법조차 없고,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화·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빠른 노력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정부도 상당히 미진하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 미세먼지특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좀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하고 환경에는 많은 돈이 들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의 가치다, 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숨 쉴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미세먼지특위의 가장 큰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또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국무조정실은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조정을 하셔서 저희 미세먼지특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 미세먼지를 정부가 어떻게 저감하고 있는지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좋은 공기 만들어 가는 데 많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부처별로 단절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잘 조율하고,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아까 잘 모르셨는데 확실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범정부적으로 힘 있는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환경부장관님과 각 부처 차관님을 비롯한 부처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 병 원	강 훈 식	김 삼 화	김 승 희
김 재 경	김 현 아	나 경 원	박 인 숙
송 옥 주	유 동 수	임 이 자	전 혜 숙

주 호 영 최 도 자 홍 일 표

## ○청가 위원(2인)

김 병 욱 신 창 현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송 주 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 무 2 차 장 노 형 욱  
안 전 환 경 정 책 관 이 정 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고 형 권  
장 기 전 략 국 장 우 범 기  
재 산 소 비 세 정 책 관 김 병 규

교육부

차 관 박 춘 란  
교 육 안 전 정 보 국 장 류 정 섭

산업통상자원부

차 관 이 인 호  
산 업 정 책 관 정 대 진  
정 책 기 획 관 윤 갑 석  
보 건 복 지 부 건 강 정 책 국 장 권 준 욱

질 병 관 리 본 부

본 부 장 정 은 경  
기 획 조 정 부 장 은 성 호

환경부

장 관 김 은 경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이 호 중  
대 기 환 경 정 책 관 김 중 룰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박 진 원

국토교통부

차 관 맹 성 규  
종 합 교 통 정 책 관 황 성 규